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공명정대한 요구

신 분 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정세를 긴장격화어로 몰아갔으며 추종세력들을 내세워 반공화국(인권)모락소동에 미쳐날뛰였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공명정대한 요구이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더우기 온 겨레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 오늘에 와서까지도 우리 민족이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것은 더는 외면할수 없는 민족적비극이다.

우리 민족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군사적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전쟁의 근원을 하루빨리 없애고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건설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제의와 노력을 외면하고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공명정대한 요구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공명정대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 해소하고 전쟁의 재발을 막을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정전은 평화가 아니다. 정전이란 말그대로 전쟁의 일시적인 중지, 적대적행동의 중단을 의미하는것으로서 그것은 결코 전쟁의 종결이 아니다. 이것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다시 전쟁을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전협정으로써는 평화가 담보될수 없다.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더라도 전시에 군총사령관들사이에 잠정협정으로 이루어지는 정전은 어디까지나 전시상태에 해당되는것이며 평화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로부터 지난 시기 일부 교전당사자들은 평화상태의 회복을 위해 정전협정을 체결한 다음 몇개월 혹은 몇년안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었다. 실례로 제1차 세계대전때 교전국들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대체로 6개월 또는 1~2년안에 평화협정(강화조약)으로 교체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관련한 정전협정들은 10년안에 모두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었다.

1953년 7월에 조인된 조선정전협정도 본래는 체결후 3개월이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어있었다.

조선정전협정은 《최후적인 평화적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할것을 서문에 밝히고 제4조에서는 쌍방의 관계각국 정부가 각기 자기 대표를 파견하여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정전협정이 조선에서 적대적군사행동의 정지만을 단순히 규정한것이 아니라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제의 계획적인 방해책동으로 하여 정치회의는 1953년 10월 26일부터 1954년 1월 14일까지 예비회의단계에서 결렬되고말았다.

이렇게 되어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 조선반도에는 공고한 평화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전체계가 유지되어왔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의 요인을 제거하는것으로 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공명정대한 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정전협정이 미국의 배신행위로 하여 이미 그 법적효력을 상실하였기때문이다.

법적효력이 상실된 정전협정을 가지고서는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수 없다. 이것은 정전협정에서 규정하고있는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소극적인 대안마저도 미국에 의하여 유명무실해진데서 나타난다. 정전협정은 사실상 파기된것이나 다름없다.

1953년 7월 27일 조선전쟁이 끝나면서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에는 평화보장과 관련하여 완전하다고는 볼수 없지만 과도적인 대책들이 제시되어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조선정전협정마저도 무시하는 행위를 집요하게 감행하여왔다.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뒤에 돌아앉아서 그것을 전면 부정하였다.

미국은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겨 침략적인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1953년 10월 1일)을 체결한 다음 조선반도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핵무기까지 끌어들여 남조선을 거대한 병기고로,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으며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경외에서 전쟁장비와 작전물자의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 제13항 ㄱ목에 대한 로골적인 위반행위였다.

그후에도 미국은 저들의 새 전쟁준비책동에 방해가 된다고 간주되는 정전협정조항들을 일방적으로 파기 또는 무시해버렸다.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버리지 않고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계통적으로 위반하면서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고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이렇게 되어 정전협정은 사실상 빈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체계가 얼마나 위태롭게 존속되어왔는가 하는것은 미국의 정전협정위반행위가 수십만건에 달하며 그로 하여 소집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만도 수백회에

이른다는 사실이 뚜렷이 실증해준다.

결과 오늘날의 정전체제는 사실상 파괴된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태에서 휴지장처럼 되어버린 정전협정준수에 대하여 논의하는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지상공론이다. 자기의 사명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실지 지켜지지도 않는 협정을 가지고서는 그 어떤 우발적인 요인에 의한 군사적충돌도 방지할수 없고 파국적인 전쟁도 막을수 없으며 나아가서 조선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도 바랄수 없다.

따라서 현시기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하루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할수 있고 조미사이에 신뢰보장문제도 해결될수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조선반도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제안,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제안,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제안 등을 비롯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최근에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여러가지 합리적인안을 제기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평화보장에 관한 우리 당과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하여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긍정적으로 인정하고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서 기본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우리 공화국과 미국이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그에 응하여야 한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제의를 받아들이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미국과의 전면전에서 아직까지 맞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율, 쓰디쓴 참패를 미국본토에 들뜨울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되어있다. 우리는 조선반도를 또다시 려강들의 각축전장으로, 전 조선민족의 멸살을 노리는 전쟁마당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전쟁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서 기본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우리 공화국과 미국이지만 남조선당국도 여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정전체제가 종식되고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되는것이 북과 남에 다같이 리익을 주기때문이다.

더우기 중요한것은 이 문제가 북과 남이 군사적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을 규정하고있는 10.4선언의 리행과 직접적으로 련관된 문제이기때문이다. 때문에 남조선당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결코 그 누구의 체면이나 세워주고 형식이

나 갖추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시기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뿐아니라 북남관계를 시급히 개선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따라서 북과 남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고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이 전제조건없이 이에 응하도록 적극 작용하여야 하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수호의 립장에서 이에 체동을 거는 모든 움직임을 반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 민족최대의 과업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것이다.